

초 대 교 회

역사속에 진리

초 대 교 회

역사속에 진리

目 次

- 기 독 교 회 역 사 책 에서
- 초대 교회 교리를 연구해 보십시오
- 詳解天主教 要理 中
- 教父들의 信仰 책
- 교회력, 金東銖 著
- 要約 基督教會史
- 基督教會史, 송락원 著
- 教會史 初代 篇
- 거짓선지자들의 주장
- 믿음만한 증거는 부활이다

기독교회 역사책에서

초대 교회 교리를 연구해보십시다.

신구약 성경을 두 책으로 나누어서 해석한다면 구약이라는 뜻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뜻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인 옛 언약은 십자가로 폐지되고 신약인 새 언약은 일반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런고로 옛 언약인 구약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행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교리는 새 언약인 신약성경에서 밝히 찾아 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교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해 주신 실지교훈은 다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더 잘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의 의견을 가입시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하늘로 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장 6절~9절) 하였으며 또는 기록하기를 (벧후 2장 3절) 『너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利)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으며 또는 기록하기를 (계 22장 18절~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진리는 한가지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 뿌리겠다고 예언하신 그대로(마 13장 24절~30절) 생명에 이르는 참 진리가 사도이후 100년 이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여 325년까지 안식일과 유월절이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 로마의 태양신날 일요일과 태양 탄생일 12월 25일이 들어와서

새 언약의 진리를 완전히 변개시켰읍니다.

유월절을 완전히 폐지시킨 년대는 주후 325 년이고 안식일을 완전히 변개시킨 연대는 주후 150 년 ~ 321 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진리가 영원히 사단에게 밟힌대로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예언대로 각 시대를 따라 진리의 빛은 일어나기 시작했읍니다. 루터는 믿음의 자유를 들어냈고 침례교회와 안식일교회는 침례와 안식일을 들어냈읍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월절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진리인 유월절을 완전히 들어 내어서 생명의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다 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세상 만민에게 전하여야 하겠읍니다.

지금 전하는 이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기록한 바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다 행하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 장 9 절)

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노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유월절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장 23절~26절, 눅 22장 7절~20절 비교) 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대 문제가 유월절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유월절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장 4절~5절) 하시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기독교회 역사책에서 하나 하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古教적 土曜日」舊約時代에 지키던 安息日是 土曜日이었다. 一

「宗徒들이 예수께 받은 權으로」그리스도께서는 宗徒들에게 「이리므로 너희는 가서 萬民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命한바 모든것을 저들에게 遵行하기로 가르치라」(마 二八・一九—二〇)는 使命을 주셨고, 이 使命을 完遂하기 위하여 必要한 方法을 制定한 權能을 또한 주셨다. 「나 眞實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世上에서 행것은 하늘에서도 행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世上에서 행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라」(마 一八・一八). 이같이 主日は 敎皇이 制定한것이 아니고 宗徒들이 制定한것이 아니냐 다음 나오는 古文獻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新敎와 古敎를 區別하고」新敎는 新約의 宗敎란 뜻이다. 같은 날을 主日로 지킴으로 인하여 新敎와 古敎의 區別이 뚜렷하지 못하고, 또 敎義는 舊約遵守에 있다고 固執하는 유대人들과 信者들이 섞이게 되어, 信仰의 危險도 不無하므로 主日을 아주 輕한 날로 지킬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復活과 聖神降臨이 日曜일에 당하였으므로」「罷工(安息日)이 붙는 아침 아침 어부를 때 마리아 막달레나 무덤에 가서 그들이 무덤에서 물러난 것을 보고」(요 二〇・一)하였으니 安息日이 붙는날인 日曜일에 復活하셨다. 또 「그날은 罷工(安息日)이 붙는일이요 또 날이 이미 저물때 門弟들이 유대人들을 무시위하는으로 모인 곳에 門戶를 잠갔더니 예수들이 오사」(요 二〇・一九)하였으니 宗徒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日曜日이었고, 「八日後에 그 門弟들이 다시 말한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더니 예수 門이 잠긴대로 들어와 가운데 서사」(요 二〇・二六)하였으니, 亦是 日曜일에 다시 나타나셨던 것이다. 「八日後」란 말은 第八日, 即 어덤편 날이란 뜻이다. 이같이 日曜일은 당신의 날로 暗示하셨다.

十誠의分類

필로의分類

- 一、너는나外에다른神을두지말라.
- 二、너는무슨偶像이든지崇拜하지말라
- 三、天主의 이름을妄使되이형언치말라
- 四、安息일을거룩히지키라
- 五、네父母를恭敬하라
- 六、殺人하지말라
- 七、姦淫하지말라
- 八、盜賊질을하지말라
- 九、네이웃을害人하고거짓證據를말라
- 十、네이웃의집을貪하지말라

聖아오스틴의分類

- 一、하나이신天主를萬有위에恭敬하여높이고
- 二、天主의거룩하신이름을불러稱讚할을중지말고
- 三、主일을지키고
- 四、父母를孝道하여恭敬하고
- 五、사람을죽이지말고
- 六、邪淫을행치말고
- 七、盜賊질을말고
- 八、妄妄된證參을말고
- 九、남의아녀를願치말고
- 十、남의財物을貪치말라

一九五八年 十月 二十日 發行

詳解天主教要理中

尹 亨重著 · 지킬 誠命篇

十誠命 變更說 (二二페이지)

(안식일은 토요일 (九〇페이지))

위에 보는바와 같이 本文에는 一誠、二誠等の分類가 明白치 않다. 故로 同一한이 本文을 놓고서도 分類는 다를수 있다. 天主教會에서도 처음에는 猶太人「원로」의 分類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다가 第五世紀에 이르러 變아오스틴의 分類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더 合理的이므로 차차 이것이 優勢하여 그후 天主教會에는 이 變아오스틴의 分類가 一般化되었다. 이제 두가지를 比較하여 보자.

1957년 7월 1일 발행

敎父들의 信仰책에서 밝힐 문제들

[93 페이지]

성경에는 일요일 지키라는 명백한
단 한구절도 없다함

[125 ~ 126]

(바스카절) 즉, 유월절 폐지문제

[470 페이지]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

測로 許容될 수 없다. 더욱이 怒濤狂風中の 乘客 같은 으레 그 控能有的 權威 있는 一體의 그 全存在을 들어 말할 수 있는 信賴를 가져야 한다.

(三) 天國으로 사람을 引導하는 重責을 전 教導者는 받드시 그 救済하기에 必要한 모든 眞理를 다짐 없이 가르치고 眞理에 關한 모든 疑問을 充分히 解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상 聖經에는 信條全部가 다 들어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信省의 遵守細目全部를 찾아낼 수 없다. 主日遵守義務의 一例을 두고 보라. 그는 勿論 信省의 가장 重大한 義務의 하나이지마는, 聖經에

서는 日曜日遵守에 대한 明白한 短句節도 찾아볼 수 없다. 聖經의 安息日是 土曜日이요 日曜일은 아니다.

또 우리는 天主聖神의 聖靈을 드린다. 그러나 聖靈의 聖靈이라는 句節은 聖經가운데서는 發見할 수 없다.

이와같이 天主敎會에서는 聖經(記號以外)에도 宗徒의 勸勉한 信仰生活上 必要義務가 또 있나 그것을 가르친다.

聖經에 記號되지 않은 主의 勸諭으로서 오늘날까지 傳來된 것을 「勸諭」이라 부른다.

聖經存在에 關하여는 聖經에서 何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例

「예수 行하심바 다몬 行한바」 그 말이 있으나 다 말한바 記號한 것이면 그 記號한바 節을 이 세상

위에라도 다 能히 말치 못함을 그 여기 노라(요한 一一・一二)는 말씀이 이를 指示하는 것이라

「너희가 天主의 말씀에 對한 說教을 우리에게서 들되 그들(마단) 사람의 말로(만) 여기저기 하고

오지 信奉하는 너희 안에 有効한 天主의 말씀으로(실상 天主의 말씀이더라) 말아라(전고너라)」(마

教皇은 邸宅 禮堂을 行使하여 「그리스도교」라는 名義를 宣稱하였다. 이 宣稱은 實情 信義의 教意는 正確한데 있어, 一世經典인이나 이를 聖堂內에서 宣稱하는 慣例을 이루기때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리스도」信義가 이 事件을 어찌하여 關連의 「세피소」의 聖(宗徒)에게 宣稱하지 아니하고, 隔隔한 羅馬에 上訴하였을가. 이 事實이, 「세피소」의 統緒權은 局地的인 것이요, 羅馬의 統緒權은 世界的인 것이었음을 證明하는 것이다.

果然 그 宣稱에는 教皇의 權威가 如實히 나타나있으니, 「萬一 어떤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임의로 宣稱하신바 事項에 不服한다면 그는 罪過와 적지 않은 危險을 自取할인을 알지나다.」(1st Corintha, C. 5)라는 節節을 들어보아도 그 權威의 絶對性을 알수 있다. 이는 그로테스카르중中 「소트」(G. Sottor) 「소」(Sohn) 「하르나」(A. Harnack) 하는이론도 最初의 教皇權 行使법을 證明하는바로서 그들은, 聖이 當時 政治文化의 中心地인 羅馬에 있기때문에 그런 權威를 行使하게 된것이라 하나, 그는 此處 疑問이론이다. 그때 教會는 迫害로 말미암아 숨어 있었는데 教皇이 어떻게 政治文化의 世界에 關與할수 있었겠는가. 다만 「세루루」宗徒의 後繼者로서의 權威를 行使하였을것이다. 거기에서 證明은 얼마든지 있다.

聖(司)을 教皇(在 一八九一—一九九) 때, 에수復活祝日은 小亞細亞 各地教會에서는 猶太人의 바스.節 即

년4월十四日에 拜禮祝日을 記念하으나서 國十六日에 지내고 羅馬에서는 國月十四日에 司會로 드는 主

에 지내었다. 지금의 復活祝日을, 春分(三月二十一日) 다음에 드는 滿月後 첫主日에 지내기도 되기는,

安息敎에서 土曜日安息日을 主張하는 論據는 이렇다. 卽

一、舊約時代 天主께서 每週の 第七日(土曜日)을 安息日로 지키라는 敕命을 주셨다. (出埃及記 二

〇・八一・一〇. 利三一・一二—一七等)

二、新約時代로 넘어와서도 安息日の 敕命은 廢止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親히 安息日을 지키셨다.

主日(日曜日)의 制度는 紀元四世紀에 天主教敎들이 「손(단원) 一 基督의 도를 받아 制定한 것이다.

三、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人子는 또한 安息日の 주니라」(마태오 一二・八) 하시고, 또 「내가 敎

法이나 戒 先知者의 記錄함을 廢하든 은 줄로 여기지 말라. 廢하든 오지 아니하고 오지 完全제하

면 왔노라」(마태오 五・一七) 하셨으니, 安息日을 그대로 지키면 主의 意向이요 命令이다.

이것이 安息日論의 全部이다.

이와 反對로 天主教敎에서는 「어찌하여 古敎의 土曜日을 버리고 日曜日を 主日로 지키느냐. 이는

宗徒들이 예수께 받은 權으로 이렇게 定하신 까닭이니, 新敎(新約의敎—卽 가톨릭敎)와 古敎(유대교)를

區別하고, 또한 新敎의 基礎의는 예수復活과 聖神降臨이 日曜일에 該當하였으므로 이 날을 記念하기

爲함이니라」고 가르친다(天主敎要理問答 卷二)

이제 天主教敎의 가르침의 옳음을 證明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敎法을 廢하든 은 줄로 여기지 말라

……오지 完全제 하면 왔노라」하신 말씀을 解明할 必要가 있다. 위와 舊約의 律法은 新約의 한 豫表

1962년 12월 일 발행

교 회 력

金 東 銖 著

[59 페이지]

(바스카) 즉 유월절과 부활절을 한절기로

1주간에 지켜오던 교리가 325년 니케아

회의서 폐지되고 말았다

어는 확실한 기록을 찾을수 없으나 신약성경 몇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정하여 지킨것을 볼수있다 (고린도전서16장 사도행전20장7절 요한계시록1장) 그밖에 마다게와 12사도의 교훈서에도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바스카와 부활절을 만절기로 1주간에 지켜오게된 기독교회는 2세기 중엽에 이르러 교회의 정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밖으로 이교 사회와 그문화 철학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안으로 신앙고백의 형성 제제의 편성(사교 사제조직)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력도 꾸며지게 된것이다. 이때에 부활절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터 논쟁」 Easter controversy이다. 이후에 합치서 지키던 바스카와 부활절을 갈로 나누게 되었다.

원래 바스카는 Pascha Staurosimou Pascha Anastasinon 으로 나누어 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의 금요일 후자는 성령의 기쁨이 넘친 부활주일로 지켰다. 그후 역시 문법(유대력 태양력)등으로 부활절의 논쟁은 325년까지 계속 되어 오다가 325년 니케아회의에서 결단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습관후 만절당을 주일로 결정된 것이다. 그후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나 정한대로 지키고 있어서 3월21보다 이르지 않고 4월25일을 지나지 않는 날자안에서 이동되고 있다. 앞으로 몇년간의 부활주일은 다음과 같다. 1962 (4. 22) 1963 (4. 14) 1964 (3. 29) 1965 (4. 18) 1966 (4. 10) 1967 (3. 26)

1970 년 3 월 일 발행

要約 基督教會史

朴 光 星 著

[39 페이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역사

유월절과 승천일, 오순절 문제

[49 페이지]

니케아 회의 325 년 5 월 6 월 회의

[61 페이지]

성탄절의 유래와 시작

(2) 라틴교회는 전반적 시행

3. 부활절

(1) 통 방 — 유대인의 유월절과 같음 (정월 14일)

(2) 서 방 — 주일을 중시 출분후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

(3) 이를 통일하려고 158년 풀니갈이 로마에 가서 타협하려 하였으나 에베소 감독과 디레네오가 반대

(4) 325년 니제아 회의에서 통일함

4. 대제기 (大齋期)

(1) 부활절전 일주간은 금식

(2) 40시간 무덤에 머물동안은 금식

(3) 40일간 대제기로 직함

(4) 전야철야, 세례예품

5. 승천일과 오순절

(1) 부활후 40일째는 승천일

(2) 부활후 50일째는 오순절

대일 성찬식과 기도서 기립함

6. 주현절 (主顯節)

성탄절없을 때 세수의세례와 그출현을 축하하는날임

제 25 장 생활과 풍속

一. 박해와 자선

1. 박해가 심함으로 성도는 결함

2. 율만 — 세시 (223-230)는 결연 없음을 확인

3. 수리아 갑바르기다 아라비아까지 원조를함

4. 살다고 전쟁시 시체를 처리하여 전염병방지

二. 정결한생활

1. 결혼을 인정하나 독신남녀를 존경

d. 크게 부패하기 전에 일대 반동이 일어남

제 30 장 니케아회의 Nicaia

一. 소집자 콘스탄틴 황제

二. 시 일 325년 5월—6월 지중해 항해를 기다려

三. 소집방법과 회원

1. 각지 감독에게 안내장을 보냄
2. 각감독은 장노2명 수령원3명을 대동함을 허락
3. 관용주차편을 보아주고 체재기간여비는 국가부담

四. 소집동기

1. 부합적 지키는 문제로 (동방은 유월절, 서)은 주일중
—시)

2. 아리어스(Arius) 학설때문에 교회가 분열될까봐

(1) 아리어스

- a. 리비아인 (천트리포리)
- b. 루기아노에게 배우고 성경석의 봉급하는 —류학
자임
- c. 알렉산드리아 장노로써 세력있음
- d. 키르코 몸이약하나 말이명쾌해서 이론잘함
- e. 열정적이며서 급속성완함으로 추종자 많음

(2) 그의 학설 (기독교)

- a.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참신다니요 동성급 동격이다니요 오직 은혜를 주
어서 세계창조의 공제자를 그본분으로함
- b. 인성이없다
- c. 악을배하셨으면 악행할수있었다 신성함으로 삼급
을 얻는다

三. 예 배

一. 예배순서 설교보다 의식에 치중

1. 一부. 세례전 과 참회진 사람이 참여함

성경낭독, 찬미, 설교, 기도,

2. 二부. 一부가 퇴석한후

a. 신자위해기도

b. 집사드린물전은 모으고

c. 장로로부터 남자와난자, 여자와여자, 각각임맞추고

d. 성찬식후 감사기도와

e. 감독의 축사로마침

二. 성탄절 12월 25일

1. 354년에 로마에서, 3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2. 기원은 로마에서 12월에 세대축재일이 있음

a. Saturnalia (12-24) 넷날에 사다른 신이 지배할
때 황금시대이름, 이를 기념

b. Sigillalia 하순 소아에게 인형주어 즐거워함

c. Brumaria 동지계 一陽의 왕복축하 기독교인이
축일을 모색하게됨

三. 성 경

1. 三분함 (유세비오史中)

a. 정통 — 四복음, 천전, 바울11지선' 메도로전서, 요
일, 묵시,

b. 의의받는글 — 야고보, 유다, 베후, 요二, 삼서,

c. 위경 (偽經) — 바울행전, 열마스의 무양자,

메드로묵시, 마나바서, 12사도의교훈

2. 콘스탄틴대제는 50부 양피지에 써서, 주요교회에 기증
했다, 의의받는 글까지 다 포함

聖誕은 로마의 農神祭

크리스마스의 由來와 갖가지 풍속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25일로 정해졌는데, 이 날은 로마의 農神祭와 관련이 있다. 農神祭는 로마의 農神인 사투르니우스(Saturnus)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자유의 나무를 심고,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풍습으로 이어졌다.



정확한 誕生日 몰라... 일부선 1월 6일로

산티클로즈는 티키에 살았던 실존 인물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초기에는 로마의 農神祭와 관련이 있었지만,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굳어졌다. 이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풍습이 퍼져나갔으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풍습은 이 시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산티클로즈(Sant Claus)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인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티키(Tici)에 기반을 두고 있다. 티키는 로마의 農神인 사투르니우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마스의 풍습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불을 깔고,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풍습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12월 25일로 기념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은 이 시기의 중요한 풍습 중 하나이다. 이러한 풍습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酒木臺

[illegible]

基督의 사

[illegible][illegible]

人들은 한결같이 平和論(平和論)을 주장하고 있다. 地上의 禍大(禍大)를 避(避)하기 위하여는 남이 아니라 人類의 團結(團結)을 하여 國際的(國際的)인 調停(調停)을 從事(從事)하는 것이 平和(平和)의 要諦(要諦)이다. 國際(國際)의 和平(和平)을 維持(維持)할 爲(爲)미는 國際(國際)의 團結(團結)을 圖(圖)하는 것이다. 國際(國際)의 團結(團結)을 圖(圖)하는 爲(爲)미는 國際(國際)의 政治(政治)를 改革(改革)하는 爲(爲)미이다. 國際(國際)의 政治(政治)를 改革(改革)하는 爲(爲)미는 이 點(點)上(上)에서 國際(國際)의 「正統(正統)」을 確立(確立)하는 爲(爲)미이다.

한글은 平和(平和)의 要諦(要諦)이다. 「조선의 평화」가 實現(實現)되기 위하여는 國際(國際)의 政治(政治)를 改革(改革)하는 爲(爲)미이다. 國際(國際)의 政治(政治)를 改革(改革)하는 爲(爲)미는 이 點(點)上(上)에서 國際(國際)의 「正統(正統)」을 確立(確立)하는 爲(爲)미이다.

[illegible]

1965年 6月1日 發行

基督教會史

宋 樂 元 著

[80 페이지]

침례하는 것이 원식이다 함

[81 페이지]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로 변경함

[82 페이지]

유월절,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 지킴

[83 페이지]

예배장소는 개인집, 셋집에서

제「아르미카」에서는 감독中 最年長者가 그 나라政治上 首府에 居住하고 司牧의 職務를 掌持하였다. 그는 그地方 全감독을 指揮하며 各감독의 年수때를 行하고 各감독의 論爭을 決定하며 二年 一次의 全牧師會議을 소집하고 司牧이 되며 牧師를 統轄하였다. 大主教는 東方牧師에 있는것으로 모든 牧師의 管轄權을 所有하고 있었다.

【禮儀】 이 시기에서 聖교의식은 신비스러운 感力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되어 次第로 迷信的 崇敬이 증가하게되었다.

【洗禮式】 洗禮方法은 一般으로 浸禮하는것이 原式이나 침례대실으로 세번 물을 붓는일이 前項대로 若干있은것이고 120年頃에는 完全한 세례식으로 여기게되었다. 그것은 대개 세례用水가 침례하기에 適當치 못함에 由한것이다. 聖惠宗에 對한 세례는 前부터 各別적으로 以上에 물을 붓는 일이 있었으나 250年에 一般적으로 許하게되었다. 受洗者는 기독교그리스를 배우고 신앙고백을 한 省에게 授洗하였고 小兒洗禮는 그 儀式가 「이리네요」 頌 이거나 「베를너안」 등은 「크리젠」 頌이라고 보나 250年에 「기르미안」의 主張에 依하면 生涯에는 可及의 속히 受洗하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行해진것이 明證이다.

洗禮의 意義는 150年頃에 세례는 罪과를 洗淨함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聖別, 洗滌, 完成等을 의미하게되었다. 이에 의하여 모든 先罪가 洗去되고 再生하는것으로 생각하여서 세례없이는 구원을 당할수 없다고 믿었고 세례는 聖式이라고 부르게되었다. 洗禮前後行하는 세례前 二三年간 기독교入門을 교육하고 學習人(기르미안)이라하여 飪食하며 罪惡, 浮世의 擯置, 司牧의 使者들을 擯棄하고 그 司牧에게 服從하기로 서약하며 信仰告白을 宣稱하는 일을 行하게 되서 聖會, 諸君, 諸君의 等級이 있게되었다. 세례후에는 聖靈의 降臨을 위하여 聖油를 부어 안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西方에서는 聖

특한 1인 1수라고 一週間 白衣를 입고 平和의 接吻을 行하고 牛乳
 와 蜂蜜의 음식을 먹었으며 靈的 가나안에 入환 表號였다. 악마를
 버리는 식은 西向하여 세번 악마를 떨어버리는 手을 展하고 東向
 하여 手屈하기를 세번 卽 그리스도를 迎接한다는 모양을 取했다.
 時期는 同時로 행하였으나 西部에서는 主로 復活主日과 五旬節에
 行하고 東方에서는 복의 主顯節에 거행하였다. 제례를 보통 감독이
 행했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長老及 그 以下의 사람이 이를 代行하였다

【聖餐式】 성찬식은 유제리스미아 Eucharistia 라하여 감사(1) 뜻으로
 此亦 聖禮라고 불려 聖日の 예배의 一部로 행하여 왔으나 특히
 이를 重視하여서 예배에서 分離하게 되었다. 時期는 毎主日に 행하던
 것이 이 시대末期에는 다른 때에도 거행하였다. 執禮者는 감독과 장
 노이고 집사는 牧師를 任命하고 명자와 囚人에게도 운반하였다. 材
 料는 떡과 포도주이고 기포로 聖別한다. 陪餐者는 受洗者이고 때로
 는 小兒도 大人과 같이 주는일로 있었다. 이 시대말에는 陪餐者가
 執禮者는 列席을 不許하고 성찬식전에 分散되었다. 성찬식의 의미는
 聖材를 그리스도의 肉體와 피라고 불렀고 최고의 거룩한 신비로운
 것으로 알았으며 정신성화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스미노」의 文獻에 있는바와 같이 성모가 감사의 뜻으로 각각
 떡과 포도주를 持來하여 神의 獻하는일이 있었으며 이런일로 성찬
 을 供物 또는 祭와같이 보게되었다. 司式者는 神의 供物을 받드시
 라 정신을 그위에 降臨케하시고 이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기를 간구했다.

第七章 禮 拜

예배의 시기로는 聖禮拜로서 安息日禮拜가 이 시기까지 계속되었
 으나 末期에 점차로 週의 最初日 卽 日曜日로 代用되게 되었다. 이

날은 주일에서復活하신 날인고로 “주의 날” 이라고 하였고 飢餓을 피하기 위하여 세계를 세력이나 혹은 밭중에 비밀히 行하였고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지켰다.

日曜日이란 이름은 이보다 좀 前에 로마에서 들어온것이다. 史家 『시온가메우스』 (155年頃) 는 이를 새로운 風이라하였고 또 『예감』 으로부터 傳來했다고하였다. 그 말은 확실한말이 아니고 『비물너인』 의 말한 바에 依하면 이날은 歡喜의 날이며 기도하는 자가 起立하여 기도하였고 勤하는 일을 行치 않았으며 齋食하지도 않았다. 日요일은 安息일이 아니었지만 『비물너인』 時代 即 紀元200年頃에 이르러 日요일에 休養하는 일을 장려했다.

【復活節】 Pascha “Easter”란 말은 日耳曼族中에서 나왔다. 그 時日是 東西가 不同하여 東에서는 유대人の 유월절과 同日 即 4월14일을 지켰고 西方에서는 『로마』를 中心으로 하여 日曜日로 定하고 復活한 일을 重視하였다. 유월절의 시일에 해당하는 日요일 즉 春分節 滿月 다음에 오는 日요일에 이를 設置되 되었다. 이로 因하여 東西間에 二回나 議論이 있었고 325年 『니케야』大會의 決定으로서 日요일에 축하키로했다.

【大齋期】復活節前 一週는 禁食週로 지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구원에 지셨다는 보도 40시간동안 斷食하는 風이 있었고 부활절 전야는 禱告하는 종과 洗禮도 行하는일이있었다. 그 後로 부활절前 40日間을 大齋期라하여 지키니 大齋期를 變호 (Lent 匹賀節) 라하는데 그것은 後世에 稱한것이다. 당시에는 四드라게시마 (Quadragesima: 40日의 意) 하였다.

【昇天日과 五旬節】 부활후 50일은 完회의 시절이어서 매일 찬란식을 行하고 斷食은 아니했다. 기쁘랄때는 서서였다. 第四十日에는 예수님의 昇天을 紀念하고 第五十日에는 五旬節에 降한 성령장령을

紀念일이다.

【顯異邦日】 또는 主顯節】 벨나그리에서는 예수님의 受洗及 그 出現을 祝하여 一月六日を 에피파니아 (Epiphania 出現) 라 말하여 祝節을 올렸다. 또는 異邦의 主로 東方박사에게 出現함을 祝하기고도 한다. 大知門의 「바실너네」門徒가 비로소 그것을 지켰다. 이 시대는 아직 크리스마스가 없는 때였고 西方으로부터 主顯日이 傳來함으로부터 에피파니아의 性質은 多少 變하게되었다.

그 외에 祝敎會 祭日도 있었다.

【斷食日】은 水曜日과 金요일 兩日 午後 三時까지 지키어 이를 步哨日 Dies Stationum 이라했다. 또 斷食을 奉贖以前 四十時였으나 지었고 其他의 時日은 감독의 指示에 依하여 지켰다.

【禮拜의場所】는 個人의 집, 셋집, 會堂이었으나 200年 以後로는 교회, 主의 집, 라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서 특별한 건물에서 예배를 거행하였다. 그 會堂은 遊行 四邊形이어서 玄關, 會衆을 수용하는 本堂, 牧師의 자리에 높은 講壇及 祭壇을 設置하였다. 繪圖, 聖像, 着色窗子, 日中燈火의 設置는 아직 없었다.

【禮拜의 內容】은 「유스피노」의 辯證書中에 記하여 말하기를 “日요일이라하는 날에 교회와 村에 居住하는 사람들이 다 한곳에 모여 시간이 許하는 限 使徒의 쓴 言行錄 또는 豫言書를 讀을 읽었다. 朗讀者가 譯讀하면 會衆은 讀本을 讀하여 그 善한 일을 모방할것을원했다. 그以後 부자들은 奉기침하여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會衆의 집이 먹지는떡과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人民은 아멘이라하여 이를 和答한다. 그이후 감사를 올린 그것을 衆人에게 나누우고 절제한 사람들것은 罰의 손을 거저 그 分을 보낸다. 그 날 저저므로 여유가 있게 되 이것을 輕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데도 그 善

1972 年 5 月 15 日 發行

教會史

初代篇

(36 페이지)

정규적인 침수식

(121 페이지)

유월절에 대한 역사

(122 페이지)

유월절에 대한 쟁론

(123 페이지)

유월절이 4 세기에 와서 폐지됨

(139 페이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금식함

3 장 속 사도 시대 교회

이었다.

그 같은 부분에서 또 세례의 성례전을 취급하면서, 정규적인 침수(浸水)식의 성례를 할 만한 물이 넉넉히 없을 때는 세 번 물을 뿌리게 하였다. 또 성찬식에 대한 지시도 거기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좋은 흥미 있는 질문은 애찬(愛餐) 곧 아가페(Agape, 본래 사랑이라는 뜻)라는 식사가 이 성찬식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목회직에 대한 지식이 많이 기록된 것인데, 기실은 자기 나오는 기록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토론 여지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유대인의 위전(飢饉)에서 말하는 목요일과 토요일이 아니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지켰다.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었고, 아름다운 기도로써 채워졌다. “부서져서 그 산 위에서 흠여지고, 그리고 한 데 모아서 하나가 된 그 때와 같이 당신의 교회도 땅 끝 여러 곳에서 와서 당신의 나라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교회 중의 사물을 위하여 고정된 이러한 기도군 밖에도 예언자들은 묵석에서 기도를 생각하여 드릴 수 있도록 격려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방랑하여 다녔고, 이런 사역자들의 만일케 된 회원 중에서도 보람 없는 회원이 교인들에게 후대(厚待)를 강요하지 못하게 용의주도한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너희에게 가는 사도마다 마치 주님처럼 접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도는 하루만 유숙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 다음 하루를 더 유할 필요가 있으면 유숙하여 만일 사물을 유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그 사도가 떠나가는 때는 그가 다음 유할 교회

십지를 위급한다는 것을 유의(留意)해야 한다. 마치, 현대의 런던과 같이 옛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도 모든 백성의 대표자를 만나 볼 수 있었다. 각종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조만간에 다 로마로 왔다. 모든 선생은 로마의 권위를 자기의 배경으로서 자 지기를 희망하였다. 이것이 자연히 로마 교회를 하나의 재판자의 자 락에 올려 놓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로마 교회의 태도 가 극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 로마의 천재는 지식적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실제적이었는데, 이는 로마 교회의 법적인 권위를 더 높인 것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 확을 거둔 것이 되었다. 세계의 모든 지방에서 각자의 습관을 고집하 는 많은 방문객을 환영한 로마 교회는 이러한 실제적 문제를 가장 절 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해결하여야 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중에 첫째 되는 문제는 부활 절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다. 사도 시대로부터 부활절을 특별히 중요하 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동서방 교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 에서 본 가장 중요한 날짜는 닛산(Nisan) 14일이었는데 이 날은 유월 절 여린 양이 잡히 죽던 날이고 그리고 제4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시던 날이다. 이 유월절 주간에 언제 이 날이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이 날 오후 세 시까지 금식하고 그리고 감사의 성 관식(Eucharist)을 거행하던 습관을 가졌었다.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 는 닛산 14 일 다음의 일요일까지 금식을 계속하고 그리고 유월절 성 관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는 그 주간 이 날 일요일에 쫓겨서 부활하였 다는 주장에서 왔다. 이러 하여 로마에서 흔히 생긴 일은 그 곳을 방

문화 손님들 가운데는 로마 지방의 교인보다 몇 년 앞서서 금식을 이미 끝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았다. 155년에 물리캅은 로마 교황 아니케터스(Anicetus)와 이 문제를 토론하였으나 양면이 다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서로 다르다. 이 날을 지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라오디케아(Laodicea)에서는 167년에 낫산 14일에 부활절을 지키던 사람들(Quartodecimans)은 이제 그 습관을 버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날에 지키는 부활절 축하하는 유대인의 유월절의 계속에 불과하였기 때문일 것 같다. 키드(Kidd) 박사는 이 사람들을 에비온(Ebion)파의 사람들 곧 유대주의화한 'Quartodeciman'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서 유일의 이단자들로 치부하였다. 그들과 바로 반대되던 주장은 참된 축하하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논쟁의 보다 더 중요한 단계는 197년 로마에서 일어났다. 아니케터스보다 훨씬 더 유력하던 로마 교황 빅터(Victor)는 모든 혼란을 중지시키고 부활절을 일요일에 지키는 도미니의 규칙(Dominical Rule)을 채용하도록 전 교회에 강요하였다. 동서방 각지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열렸는데, 그 결과는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각지에서 도미니의 규칙을 채용하게 되었다. 빅터는 거기에서 자기의 특권을 행사하여 완고하게 거절하는 교회를 제벌하였다. 그런데 이 처사는 합의의 폭풍을 일으켰다. 이레니우스는 중재자로서 활동하려고 애썼다. 에베소의 감독 폴리크라테스(Polycrat)는 자기 편지에서 성 필립과 성 요

콘스탄티노플 제 4차 공의회 395년
4세기초에 걸쳐서 결정하였다
최초의 대공의회에서

교부들의 신앙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장 처음으로 초대 계속된 정화
한과 그리고 아시아의 그 밖의 성자들의 한 사람의 권세를 자기가 행
사한다고 주장하고 항쟁하기를 자기는 자기 가운데서 감독의 직분을
여덟 번에 가지는 사람이므로 적어도 어느 것이 바른 글적일지를 안
다고 하였다. 빅리는 물리크라테스의 주장을 좋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가 내린 처벌을 취소한 듯하다. 닛산 14 일에 부활절을 지키자는
사람(Quartodeciman)들이 4 세기 경에 와서 아주 없어져 버렸으므로
빅리가 취한 조처는 잘못된 것이었다. 물론 닛산 14 일이 좌우되는 판
월(滿月) 날짜를 정하는 문제에도 곤란이 여전히 있었으나, 그러나 동
방 교회를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에게, 또 서방 교회를 위해서
는 로마의 감독에게 각각 책임을 맡겨서 매년 지킬 부활절의 날짜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 어려운 날짜 문제는 해결되었
다. 이 습관은 정식 역시(詔書)가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역시 제정은 6 세기까지는 되지 못했다.

그 밖의 신학적 및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로마의 논쟁은 초대 교회
저자들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못한 히폴리투스(Hippolytus)라는 사
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된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그는 이레니어스의 제자였고 그리고
자기 스승보다 학문에 있어서 더 우수하였다. 3 세기 초에 그는 로
마의 한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이미 언급한 파와 같이 막기민 황제
에 의하여 그는 감독 폰티아너스(Pontianus)와 함께 사르디니아
(Sardinia)의 망산으로 유배를 받아 갔다. 그는 거기서 받은 곤란에
문에 죽었고, 그리고 1551 년에 발견되어 세상에 소개된 저 독특한
조상(彫像)의 주인이라는 명예를 받았는데, 그 조상은 머릿도 없이

습관은 유대인에게서 떨어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고 내린 그 여행을 기념하여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이 지킨 그 날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들이다. “신랑이 잡히갈 때 그 날에 너희들은 금식할 것이라.” 그 금식은 오후 세 시에 끝났다. 또 그 밖에도 매년 거룩한 수난 주간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금식을 행한다. 교훈서(Didascalia)에는 이 금식을 수난 주간에 날마다 행하게 되어 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사람은 40 일 전부터 금식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오늘날 지키는 사순절(Lent)행사의 유래가 된 듯하다.

지켜온 가장 오래 된 절기는 부활절과 일요일의 예배였다. 부활절 축하는 오순절까지 연속하였고, 터덜리안은 이 기간에 무릎을 굽지 않고 예배하는 습관을 언급하였다. 일요일은 매 주간에 오는 부활절이었고 그리고 일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과는 신중하게 구별하였다. 터덜리안은 일요일에 흠뻑하게 만들려는 경건한 노력의 시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콘스탄틴 대황 때까지는 이 날에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일은 없었다. 이 날의 특징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만찬의 거행이었다.

V 성만찬 예전

성찬 예식(Eucharist) 혹은 감사 예식(Thanksgiving)은 매 식사 때에 드리는 아티스티데스가 우리에게 말하여 준 그 감사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 성만찬 식이란 것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참여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

요사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이적 기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다. (살후 2 장 9 절 ~ 12 절) 『악한 자 (거짓 선지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시니라』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 24 장 24 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시었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마 7 장 22 절 ~ 23 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하시었습니다.

참교회안에는 이적이 없지는 않으나 진리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이적은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보낼뿐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도 빠져 들어가기 쉽다. (신 13 장 1 절 ~ 3 절)

『너희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 하심이니라.』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계 13 장 13 절 ~ 14 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

이 하늘로 부터 땅에 내리오게 하고 짐승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

또 기록하였으되

(계 16 장 13 절 ~ 14 절) 『 또 내가 보매 개고리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우더라. 』 또 기록되었으되

(계 19 장 20 절 ~ 21 절) 『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
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라 이 물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우고 』 하였다.

위와 같이 이적을 내세우고 사람을 유혹하는 교회는 다
- 거짓선지자들 입니다.

요사이의 교회밖에서도 놀라운 큰 이적들을 행하고 있음
니다.

전라북도 정읍군에 있는 농촌 할머니에 지나지 않는 부

믿을만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오늘날에는 1,900 년 동안 묻혀있던 진리의 부활입니다. 진리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받기가 대단히 힘들것입니다. 기록된바 『찬송 하리로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 장 3 절 ~ 4 절) 하셨습니다.

물론 위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진리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근본 진리를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실지 교훈과 기독교회 역사를 참고해서라도 진리는 찾아내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고 무덤
에 장례지냈지만 삼일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 언약의
진리도 마귀가 빼앗아 버리고 짓밟아 땅속에 묻었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부활의 이적이 상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다른
이적은 다 - 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의 부활은 모방
할 수 없습니다.

이 소책자를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분명한 사실을 발
견하게 될것입니다. 아멘.

1985년 2월 일 인쇄

1985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 하나님의 교회

출판 : 하나님의 교회 출판사

등록 : 부산시 해운대구 제 1 호

(서기 1980년 7월 14일 등록)

발행소 :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우일동 829

저자 : 안 상 흥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일동 944-6호

전화 : 주택 72 - 9093 번

교회 752 - 4325 번
